

## 류현진, 한국프로야구 '한화'로 복귀

류현진(37)이 미국프로야구 리그(MLB)에서 팀을 찾지 못하고 한국프로야구 한화이글스로 복귀했다.

한화는 지난 22일 "류현진과 계약기간 8년, 총액 170억원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계약 조건에 대해서는 양측 합의 하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잔여 계약을 파기하고 프리에이전트(FA) 신분이 될 수 있는 옵트아웃 조항이 삽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류현진의 계약 금액은 KBO리그 역사상 최고액이다. 종전 최고액은 지난해 두산으로 복귀하며 152억원(4+2년)의 계약을 따낸 양의지이다.

류현진은 인천 동산고를 거쳐 2006년 한화에서 프로



▲ 류현진의 유니폼 단추를 채워주는 박찬혁 한화 이글스 대표 이사, 사진=한화 이글스

데뷔했으며 2012년 말 포스팅(비공개 경쟁 입찰·2573만 7737달러)을 통해 MLB로 진출했다. 이전까지 그의 KBO 리그 통산 기록은 7시즌 190경기 출전, 98승52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2.80이었다. 메이저리그에서는 엘에이(LA) 다저스에서 데뷔 뒤 에프에이 자격을 얻어 토론토 블루제이스로 이적(4년 8000만달러)했었다. 메이저리그 통산 기록은 10시즌 78승48패 평균자책점 3.27이다.

한화는 류현진과 메이저리그 구단 간 계약이 지지부진하자 1월 중순부터 치밀하게 류현진 영입을 준비해왔다. 메이저리그 몇몇 구단도 류현진에게 계약 제시를 했으나 류현진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았다. 수술 경력과 적지 않은 나이 탓에 보장액보다 옵션이 더 많은 계약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골프 스코어카드

### “멍청한 규정” Vs “진정성 지키는 전통”

스코어카드를 잘못 표기한 선수가 실격당하는 골프룰은 구시대의 유물일까. 지속돼야 할 전통의 상징일까?

지난 2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조던 스피스(미국)는 지난 17일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2라운드 4번홀(파3)에서 보기를 범했으나 실수로 스코어카드에 '4' 대신 파를 의미하는 '3'을 적어 실격당했다.

스피스의 실격 이후 소셜미디어에서는 PGA 투어 베테랑도 한 순간에 실격 운명을 맞을 수 있는 혹독한 규정에 대한 시비가 뜨겁게 일었다. 모든 샷이 중계 화면에 잡히고, 최첨단 장비를 통해 통계가 작성되는 리그에서 왜 선수들이 스코어를 직접 손으로 적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과 골프의



▲ 지난 17일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2라운드에서 플레이 하고 있는 조던 스피스, 사진=AP연합뉴스

진실성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반론이 대립한 것이다.

스피스의 지인들과 일부 미국, 유럽투어에서 뛰는 선수들, 골프 비평가 등은 "최고 수준의 스포츠에서 가장 어리석은 룰", "터무니 없는 낡은 유물" 등의 비판을 쏟아냈다.

하지만 PGA 투어에서 뛰는 달런 우(미국)는 부정확한 스코어카드에 서명하는 것은 "시험지에 이름을 적는 것을 잊는 것과 같다"고 비유했고, "너무 쉽게 그런 실수가 나왔다"며 세계 2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도 전통을 지키는 쪽에 무게를 더했다.

PGA 투어에서는 이에 대해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

## 박인비, 올 시즌 LPGA 투어 출전 안 한다 IOC 선수위원 도전 때문

'골프 여제' 박인비(35)가 올해는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 대회에 출전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21일 'STN뉴스'에 따르면 미국 '골프 위크'는 전날 지난해 3월 장녀를 출산한 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후보로 선정된 박인비의 근황을 전하며 "박인비는 오는 8월 파리올림픽에서 진행되는 IOC 선수위원 투표에 앞서 선거 유세 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올해 LPGA투어 대회에 출전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박인비는 지난 2022년 8월 열린 AIG 위민스 브리티시 오픈 이후 LPGA투어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있다. 메이저 대회 7승을 포함해 LPGA 투어에서 21승을 거둔 그는 2016년 리우올림픽에서도 금메달을 따내며 '골든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기도 했으며, 같은 해 LPGA 명예의 전당에 입성했다.

지난해 8월 IOC 선수위원 한국 후보로 선정된 박인비는 오는 8월 파리 올림픽에서 열리는 IOC 선수위원에 도전한다. 만약 박인비가 선수위원 후보 32명 중 4명에게만 주어지는 IOC 선수위원에 당선된다면 이후 8년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된다.

7	9		3		8	6
		5	9			
4	6			2		5
			2		4	3
	8		6		7	
		9				2
6			1	7	9	
		4		9		7
			3			8

## 좋은신문 알찬신문 '타운뉴스'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개인의 작은 권리 하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인간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있고 유익한 기사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싣고 격조높은 기사와 광고만을 게재하는 '타운뉴스'와 함께 신문을 만들어 나갈 분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광고영업직 ..... 0명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E-mail: info@townnewsusa.com

14311 Valley View Ave. #202, Santa Fe Springs, CA 90670

